



안녕하세요. 저는 박해진 헬레나수녀입니다. 가톨릭 신앙이 깊은 집안의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면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성소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. 성당에서 늘 만나게 되는 수녀님들의 모습은 언제나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. 중학생 때부터 입회 전까지 '레지오'를 했었는데 학교를 오거나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게 되었었고,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그 기도의 힘이 오늘 저를 이곳에 있게 하는 원동력 이었던 것 같습니다.



인생의 수순처럼 1994년 '사랑의 씨튼 수녀회'에 입회했고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제 사도직은 본당 사도직 11년과 피정집, 본원회계와 씨튼가족 등을 담당했었고, 1년 전에는 본원주방장을 했습니다. 피정집 사도직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, 그 일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주방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가

만든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었고 많이 행복 했었습니다.



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체험은 수녀원에 입회한지 두 달 만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하늘나라에 보내드린 사건이었습니다. 그때에는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체험이 제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파견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 중에서 제 마음이 가장 크게 머물렀던 곳은 '죽음'의 자리였습니다. '죽음'이라는 사건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이 저에게 있었고,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게 주

신 선물이었습니다.

그래서 조금은 이례적인 선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'장례지도학과'에 입학하게 되었고, 2년 공부를 마친 후에는 '심리상담 치료학과'에 편입하여 공부를 마쳤습니다. 지금은 1년 전부터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원목수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이 곳에서 육적



영적으로 고통 받는 환 자들과 제가 그랬던 것 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

온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죽음을 마주한 보호자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제 전공을 살려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례식까지 함께 동반하고 있고, 그 순간이야말로 (저를 통한) 하느님의 현존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장례식 이후에는 남겨진 사별가족들을 돌보며 그들이 상실감을 잘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일 또한 보람 있는 일입니다.



《제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 있다면 평생을 하느님 안에서 성소의 삶을 충실히 살아오신 저희 수녀님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드리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저도 그렇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배웅을 받으며 영원하신 하느님을 향한 새 출발을 기쁘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.》



Hello! I am Sister Park, Hae Jin. My baptismal name is Helena. I had a desire for a religious vocation naturally when I was young because I grew up in a very Catholic family. Sisters whom I met in my parish were the real desire of my heart. I joined the Legion of Mary in middle school and continued until entering the community. So I used to pray Rosary on the way to school or coming back home. Surely, the power of my prayers at that time were a driving force to make me who I am.

Like a natural course of life,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in 1994. I had various ministries such as working in parishes for 11 years, at a retreat house, for Seton Family and as Provincial House treasurer. I was director of dietary ministry in the provincial house a year ago. What I learned



about myself at the retreat house is that I have a talent for cooking and enjoy it. I felt very happy and fulfilled that people enjoyed meals that I cooked.



I had the most difficult but precious experience in my life when I was only in the community two months. My beloved father passed away even though he was not old. He had a cancer. I didn't understand what it meant to me. As time went by, I realized that the experience had a great influence on my life. Of many people and events that I have encountered in my ministries, death always held a special place in my heart. I have greater love and passion for taking care of people who are facing death. It was a gift that my deceased father gave me.

So I entered a college to study Mortuary Science when the community gave me a special chance to study. After the 2 years course I transferred to a university to major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. Now I have been doing pastoral care ministry in Chosun University Hospital for one year. I provide comfort and care to patients who are physically and spiritually suffering and to family caregivers who are facing the pain and death of their loved one as I did. Most of all, I accompany the dying to the funeral as I learned from my college



major. People need the presence of God most in the face of death and He is present with them through me. After funerals I also take care of bereaved families; helping them overcome the deep feeling of loss and return to their daily life.

My last wish is that I serve and care for our sisters, who have lived their religious life faithfully in God, on the last way to eternal life. And I believe that, as I serve now, one day I will happily take a new step to the eternal Father having a beautiful send-off by someone.